



즉시 배포용: 2023년 4월 1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항소법원의 수석 판사로 ROWAN WILSON 지명

주지사는 또한 Caitlin J. Halligan을 항소법원의 부재판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며 Joseph Zayas 판사가 최고 행정판사를 맡는 것에 대한 지지 표명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지난 6년간 항소법원 배석판사로 근무해 온 Rowan D. Wilson 판사를 수석 판사로 지명하여 지난 여름에 생긴 공석을 메웠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Wilson 판사의 공석인 항소법원 배석판사 자리를 메우기 위해 뉴욕주 법무장관과 뉴욕카운티 지방검사의 법률고문을 역임하고 현재 Selendy Gay Elsberg PLLC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Caitlin J. Halligan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Wilson 판사가 3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Joseph Zayas 판사를 행정 수석 판사로 임명하도록 추천한 의도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소법원 부장판사는 주 최고법원을 이끌 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원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강력하고, 유능하며, 사려 깊은 지도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저는 Wilson 판사를 수석 판사로 지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Wilson 판사의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기록은 그들이 중요한 시기에 법정을 이끌기에 적합하게 합니다. 법원이 계속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저는 또한 우리의 사법 제도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다 줄 Caitlin Halligan을 지명할 생각입니다. Halligan 씨는 사법지명위원회가 검토한 7명의 명단에서 적극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재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 최고 법원의 존엄을 높이고, 뉴욕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법원 체계가 꼭 막혔는데, 더 이상 우리 제도의 미흡함으로 정의가 부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 새 지도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Rowan D. Wilson 판사는 2017년부터 항소법원 배석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인준되면 Wilson 판사는 최초의 흑인 수석 판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로스쿨에 이어 1984년부터 1986년까지 Wilson 판사는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수석 판사 James R. Browning의 법률 서기로 일했습니다.

이후 배석판사로 **Cravath, Swaine & Moore LLP**에 합류하여 1992년에 파트너가 되었고, 특히 회사 역사상 최초의 흑인 파트너로 일했습니다. 개인 업무를 하는 동안, **Wilson** 판사는 수많은 기업 및 무료 변론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률에 따른 시민 권리를 위한 변호사 위원회(**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 and Economic Justice**)와 국립 법률 및 경제 정의 센터(**National Center for Law and Economic Justice**)의 이사로 재직했으며, 할렘 커뮤니티에 법률 대리인과 커뮤니티 기반 공공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할렘 이웃 변호사 서비스(**Neighborhood Defender Service of Harlem**)의 회장으로 21년간 일했습니다.

Rowan D. Wil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소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것은 제 경력의 영광일 것이며, 이번 **Hochul** 주지사님의 지명을 경허하게 수용합니다. 뉴욕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이며, 저는 **Hochul** 주지사님과 우리의 파트너들과 사법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협력하여 우리의 법원을 관리하고 정의를 구현하기를 고대합니다."

Caitlin J. Halligan 씨는 현재 **Selendy Gay Elsberg PLLC** 법률 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Halligan** 씨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95년 조지타운 대학 법학센터를 졸업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그녀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의 **Patricia Wald**와 미국 연방 대법원의 **Stephen Breyer**의 법률 서기로 일했습니다.

Halligan 씨는 뉴욕주 검찰총장실 인터넷국 국장(**Internet Bureau in the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과 뉴욕주 제1부 법무관(**First Deputy Solicitor General for the State of New York**)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뉴욕주 법무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욕 카운티 지방 검찰청의 법률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강사로 여러 수업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전에는 컬럼비아 로스쿨과 조지타운 법률 센터에서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Caitlin J. Halli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법원은 모두를 위한 청렴, 공정, 정의가 있는 곳이어야 하며 법원 판사로 임명이 확정된다면 이러한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중요한 시기에 저를 믿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항소법원은 1847년 헌법 개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20년 동안, 재판관의 절반은 대법관 중에서 선출되고, 절반은 주지사가 임명했습니다. 1867년~1868년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는 7명의 판사를 위한 새로운 조항 초안을 만들었고, 그 때부터 1977년까지 주 전체의 선거에 의해 법원의 판사가 선출되었습니다. 1977년 주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부 지명위원회를 만들어 주지사가 후보자를 법원에 추천하고, 주지사가 추천된 사람 중에서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요구된 입법부는 1978년 사법부법 3-A조를 채택하였고, 1980년대에 이 법 조항이 두 차례 더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적 권한과 법률상 권한과 일관되게, **Hochul** 주지사는 법원 공석을

메우기 위해 이미 승인된 목록에 있 개인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수석 판사가 되는 배석판사 공석을 주지사가 신속하게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사법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